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대학생의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이 동 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대학생의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이 동 민

이동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김동일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신윤정 _____ (인)

위 원 _____ 김창대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재평가에 의한 적대적 귀인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상담 현장에서 강한 전위공격성을 보이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42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0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 산출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특성과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통해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첫째, 적대적 귀인편향과 인지적 재평가를 제외한 변인 간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재평가, 적대적 귀인편향과 인지적 재평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시사점, 한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인지적 재평가, 전위공격성, 조절된 매개효과

학 번 : 2020-20501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5
2. 적대적 귀인편향 ····· 7
3. 인지적 재평가 ····· 8
4. 전위공격성 ····· 10
5. 각 변인 간의 관계 ····· 12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 12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 14
   3)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 15
   4)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인지적 재평가의 관계 16
6. 연구가설 및 모형 ····· 18
   1) 연구가설 ····· 18
   2) 연구모형 ····· 19

제 3 장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0
2. 측정도구 ····· 23
3. 분석방법 ····· 27

제 4 장 결과 ····· 28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28

2. 매개효과 검증 ····· 29
3. 조절효과 검증 ····· 31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34

제 5 장 결론 ····· 36
1. 결론 및 시사점 ····· 36
2. 한계 및 제언 ····· 41

참고문헌 ····· 43
부록 ····· 58
Abstract ····· 68

표 목 차

[표 3-1] ····· 22
[표 3-2] ····· 24
[표 3-3] ····· 25
[표 3-4] ····· 26
[표 4-1] ····· 29
[표 4-2] ····· 30
[표 4-3] ····· 31
[표 4-4] ····· 32
[표 4-5] ····· 33
[표 4-6] ····· 34
[표 4-7] ····· 35

그 림 목 차

[그림 2-1] ····· 19
[그림 4-1] ····· 3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격성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로 지나친 공격성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방해하나 적절한 수준의 공격성은 우리가 자기표현을 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황예린, 김유미, 2013). 이러한 공격성은 건강한 방식으로 올바른 대상에게 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분노 대상이 소음, 악취와 같이 실체가 없거나, 부모, 상사와 같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공격성이 억제되고 나중에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표출되게 되는데(Bushman et al, 2005; Dollard et al, 1939), 이를 전위공격성이라고 한다.

2016년에 강남의 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던 사이로,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전위공격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과잉 분노 상태가 일상화된 특성을 보이며,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사소한 촉발 요인에 의해 과잉 표출되어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된다(윤정숙, & 김민지, 2013).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나 노인과 같이 가해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전위공격성의 발생 기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0명 중 72.8%가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조상

윤, 2016). 이와 같이 묻지마 범죄로 대변되는 전위공격성은 피해자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방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위공격성은 동양 문화권의 초기 성인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 대학생의 직접공격성과 전위공격성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양 문화권의 대학생들은 더 높은 직접 공격성을 보인 반면에 동양 문화권의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전위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Redford, 1999). 이는 분노와 같은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것이 익숙하고(서민재, 2009),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겨 손윗사람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는 동양권 문화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류준범, 2001).

또한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한다(장계영, & 김봉환, 2011; 문정희, & 천성문, 2020). 이로 인해 대학생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쉽게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에 미숙하다(박경희 & 김혜원, 2022). 따라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환기하기보다는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박지환 외, 1997), 이러한 억제된 분노는 내면에 강렬하게 잠재되어 있다가 상대적으로 무해한 촉발자극에 의해 분노와 상관이 없는 대상에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Baumeister et al, 1996).

초기 성인기의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으로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교묘한 유형의 통제이다(Barber, 199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나(이가빈, 2019; 금다정, 2018; 박누리, 2022),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오민선, 2020; 박선경, 2017; 김경아 & 권해수, 2015),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의 발생 기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는 것

을 고려할 때(Gold & Wegner, 199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으로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있다. 적대적 귀인 편향이란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에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한다(Milich & Dodge, 1984). 부모의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고 자란 개인은 의지할 수 있는 타인 표상을 형성하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타인 표상을 형성하게 만든다(Price & Glad, 2003). 그리고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과잉경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은경 & 이정숙, 2009).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중 하나인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의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지적 신연합주의 이론(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Model)에 따르면 적대적 상황은 개인의 사고, 기억, 생리적 반응 등으로 구성된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이후 평가와 귀인과 같은 고차 인지 과정이 개입하여 정서적 반응의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Berkowitz, 1993). 그리고 강렬한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촉발 자극에 대한 귀인 왜곡을 발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Miller et al, 2003). 이와 같이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되고, 전위공격성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대적 귀인편향이 매개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통제적이고,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양육을 경험한 개인은 가정 밖의 사회적 상황에서도 타인의 중립적인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으로 인식하여, 이는 무고한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인지적 재평가가 있다. 인지적 재평가는 잠재적으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다(Lazarus & Alfert, 1964).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Bowlby,1980), 적대적 귀인편향은 이러한 인지도식이 활성화될 때 나타난다(Tuente et al, 2019). 이때 인지적 재평가가 역기능적인 도식을 재구성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Long, Hayes,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행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떤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두 변인 사이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전위공격성을 예측하고 이해하고자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어떤 내적 보호요인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Nanda, 2012), 지금까지 선행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고 어떤 조절 변인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 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재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위공격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Havighurst, 1953).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측면을 말하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Fishbein, 1975). 이는 비단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조한익, 2002).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우울과 분노 등의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비행, 중독 등의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세경, & 김영혜, 2011;김광숙 등, 2017; 남가희, & 홍상황, 2015; 석민정, & 오인수, 2014).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나아가 초기성인기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기숙, 2018).

Barber(1996)는 부정적인 양육태도 중 통제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 두 가지로 확장하여 구분하였다.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는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을 지칭하며(Barber, 1996),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는 기분에 따라 자녀를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등의 심리적 공격행동을 의미한다(Barber & Harmon, 2002).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 또는 생활태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행동적 통제가 가해지는 경우

외현화 문제가 감소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ber et al, 2005). 이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녀에게 필수적인 감독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발달을 조력하는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Gomez et al., 2001).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행동적 통제는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와 관련 될 수 있다(Smetana & Daddis, 2002).

이에 반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기표현 제한, 죄책감 유발, 비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으로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교묘한 유형의 통제이다(Barber, 1996).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애정철회,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모가 자녀의 언어적인 표현을 억제하고 자녀의 자기표현과 자기발견을 억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벌하거나 거부나 적대적 무관심을 보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정서표현을 보이는 것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자녀는 이를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정서의 자율성 발달과 심리적 자기 성장을 방해받게 된다(Barber & Harmon, 2002),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내현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Nanda et al, 2012),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et al, 1998; Hoeve et al, 2009).

이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 우울과 같은 내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분노표출, 분노억제 등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중독,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경희 & 홍혜영, 2015; 한아름 등, 2018, 마은애, & 손은정, 2014; 오민선, 2020; 고민정, 2019; 박누리, 2022; 손유진, 202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anda, 2012;

Romm, 2020; Winner, 2018).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느낌을 받으며(Arnett, 2000)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르지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통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하정희, 조한익, 2006). 또한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개별화 및 자율성을 획득하는 발달단계에 놓인 특성상, 대학생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더욱 해로울 수 있다(김지현, 2017). 실제로 성인 진입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간주하며(Arnett, 2007),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성인 진입기의 자녀가 집을 떠나 살더라도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가해진다(Abaied & Emond, 2013).

2. 적대적 귀인편향

사회정보처리모델(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odel)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적 반응은 ① 단서부호화(encoding of cues), ② 단서해석(interpretation), ③ 목표명료화(goals clarification), ④ 반응 탐색 및 생성(response access or construction), ⑤ 반응결정(response decision), ⑥ 행동실행(behavior enactment)와 같이 여섯개의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며,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기억, 사회적 지식, 상황 및 타인에 대한 인지적 도식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rick & Dodge, 1994).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단서에 대한 부호화와 해석이 이루어지며, 개인은 선별적으로 특정한 상황적, 내부적 단서를 택하고 부호화하고 해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에서 목표나 바라는 결과를 선택하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당면한 상황에서 가능한 반응에 대한 기억에 접근하고, 만약 새로운 상황일 경우 즉각적인 사회적 단서에 반응하여 새로운 반응을 생성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접

근하거나 생성해낸 반응을 평가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응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반응이 행동적으로 실행된다(Crick & Dodge, 1994; Lemerise & Arsenio, 2000).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단서해석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로 적대적 귀인편향(hostile attribution bias)이 있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에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한다(Milich & Dodge, 1984). 이는 현재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타인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도식을 활성화할 때 나타나며(Tuente et al, 2019), 단서해석 단계에서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왜곡이 발생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Crick & Dodge, 1994).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은 공격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uente et al, 2019). Brugman 등(2015)에 따르면 공격적인 단어에 더 주의편향이 되어있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큰 공격성을 보였으며, Schönenberg과 Jusyte(2014)의 연구에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모호하고 중립적인 표정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격성의 발생에는 자극이나 상황 요인보다도 인지적 평가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Quiggle et al., 1992).

3. 인지적 재평가

Gross(2001)에 따르면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이는 넓게 선행 초점(antecedent-focused) 정서조절 전략과 반응 초점(response-focused) 정서조절 전략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선행 초점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적 반응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개인의 행동과 생리적 반응이 변화하기 전에 사용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반해, 반응 초점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

가 활성화된 다음에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 초점 정서 조절 전략 중 하나로 인지적 재평가가 존재한다.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는 잠재적으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Lazarus & Alfert, 1964), 인지적 재평가 과정에는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고,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Ray et al., 2008). 인지적 재평가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hy: CBT)에서 왜곡된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을 교정하는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의 핵심 요소이다(김윤경, 2019). 이와 같이 인지적 재평가는 자극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게 하고 다른 시각을 취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Garnefski & Kraaij, 2006).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와 객관화 재평가(detached reappraisal)의 두 가지 하위전략으로 세분화된다(Gilbert & Holahan, 1982; Shiota & Levenson, 2009, 2012). 긍정적 재평가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중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이며(Folkman & Moskowitz, 2000),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나 이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정희선, 2022). 반면 객관화 재평가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거나 제 3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관찰하여 상황의 객관적인 측면이나 해석에 주의를 두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Shiota & Levenson,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재평가는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써 높은 수준의 인지적 재평가는 우울, 사회불안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억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Dryman & Heimberg, 2018; Bryan et al, 2018; Brockman et al, 2017; Wu et al, 2015). Rodney(2000)의 연구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위협적인 평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데 반해, 높은 수준의 재평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인지적 재평

가는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위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이란 타인 또는 다른 대상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Anderson & Bushman, 2002). 공격성은 방식, 목적,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방식에 따라서는 신체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과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여 타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다(Frodi et al, 1977). 목적에 따라서는 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과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적대적 공격성은 분노에 의해 충동적으로 행해지며 대상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행동이고, 도구적 공격성은 대상에게 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공격 행동을 일컫는다(Anderson & Bushman, 2002). 마지막으로 공격행동이 어떤 대상에게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직접 공격성(direct aggression)과 전위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며(Bushman et al, 2005), 전위공격성은 원래 분노를 유발한 대상이 아닌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Denson et al, 2006).

이러한 전위공격성은 원래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분노 대상이 사라지거나 소음, 악취 등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경우 분노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위공격성이 유발된다(Bushman et al, 2005). 한편으로는 원 분노 대상이 보복하거나 처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클 경우 직접 공격성

이 억제된다(Dollard et al, 1939).

지금까지 전위공격성의 발생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방출하거나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카타르시스 이론에 따르면 분노를 환기하는 것은 개인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 심리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공격적 충동은 표현됨으로써 방출되길 추구한다.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 안에 남아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Bushman et al, 2001). 카타르시스 이론에서 전위공격성은 좌절 경험 후 느껴지는 분노를 방출하여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만들고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로 보았다.

Martin과 Tesser(1989)는 전위공격성의 기제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반추과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반추사고는 이를 자극하는 환경적 단서 없이도 긴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인지적 에너지 소모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반추과정은 자동화되고 무의식화된다. 이에 따라 반추 내용과 무관한 환경적 단서에도 반추사고가 쉽게 활성화되고,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관련 정서를 활성화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공격적인 반추사고는 타인의 무고하고 사소한 행동을 의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위공격성은 반추된 공격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Miller & Marcus-Newhall, 1997).

전위공격성의 수준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우선 첫 번째 요인으로는 원 도발 사건의 강도가 존재한다. 원 도발 사건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정서적 각성과 반추적 사고가 활성화되고, 이는 더 높은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다(Rachman, 1981). 전위공격성의 대상의 특징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소 좋아하는 대상에 비해 싫어하는 대상이 전위공격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Alcock et al, 1998),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보다는 낮은 지위의 개인에게 전위공격성이 표출된 가능성이 높았다(Berkowitz, 1990, 1993). 또한 원 도발 대상과 유사할수록 전위공격성의 강도가 높아졌다(Marcus-Newhall et al., 2000). 이와 같이 전위공격성은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상의 속성 등 다양한 변인을 고

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각 변인 간의 관계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죄책감 혹은 부모가 애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여 부모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쉽게 빠지고, 이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Barbar, 1996). 즉, 정서적 경험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신의 수용부족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타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게 된다(오민선, 2020). 이와 같이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인 진입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높은 관계적 공격성과 명시적 공격성을 보였고(Little & Seay, 2014), 손유진(2022)에 따르면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하여 더 큰 관계적 공격성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김현아 & 장혜인, 2016; 김윤지 & 이신동,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 특히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Ferguson et al, 1999). 수치심은 다양한 이차정서를 유발하는데 그 중 분노와 높은 관련이 있다(장진아, 2006).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을 크게 경험할수록 부정 정서를 잘 다루지 못하고(황지연 2014), 직접적으로 분노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정해숙 & 정남운 2011).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 중 하나인 분노억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오민선, 2020; 박선경, 2017; 김경아 & 권해수, 2015), 분노

억제는 전위공격성의 발생 기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Gold & Wegner, 1995; Baumeister & Boden, 1996; 이나영 외, 2017; 신현경, 2016; 이재필, 최가희, 2022; 황지연, 연규진, 2018). Gold와 Wegner(1995)에 따르면 사고억압은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떠오르도록 만든다. 따라서 개인이 분노가 유발되고 이와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분노 관련 사고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소한 사건에 대한 공격 행동의 역치를 낮추게 되고 이는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Miller 등(2003)에 의하면 초기 도발 사건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의 강도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촉발된 전위공격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도발의 내용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평가절하 등의 자아에 대한 위협(ego-threatening)과 관련이 있을수록 보복에 대한 충동이 커진다(Baumeister et al, 1996).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과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고려할 때(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경험하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금다정과 정은정(2020)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고, 박누리(2022)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 편향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개인의 자기와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Dodge, 1993). 반응적이고 따뜻한 양육은 신뢰롭고 의지할 수 있는 타인 표상을 형성하는데 반해, 방임적이고 학대적인 양육은 적대적인 타인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Price & Glad, 2003).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Dodge 등(1995)은 편향된 귀인반응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적대적인 양육경험을 제시하였다. 적대적인 양육경험을 한 개인은 부모로부터 애매함을 가장한 적대적인 의도 및 행위를 경험하여, 타인의 의도를 경계하고 고의성과 적대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게 된다(김은경 & 이정숙, 2009).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개인은 위협에 대해 과잉경계를 하고 의도에 대해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모호한 행동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Dodge et al, 2015).

실제로 Gomez 등(2001)에 따르면 지각된 모의 통제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적대적 귀인 편향을 예측하였고, 부의 체벌과 심리적 통제 같은 부정적인 양육 방식이 자녀의 적대적 의도귀인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Nelson, Coyne, 2009).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박누리,2022)과 남자 중학생(조서경,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적대적 귀인편향을 예측하였다. 또한 신애규(2018)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 성향과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적대적 귀인 편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인지적 신연합주의 이론(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Model; CNA)에 따르면 혐오 사건은 두 단계를 통해서 분노와 공격성으로 이어진다(Berkowitz, 1993). 첫 번째 단계에서 혐오 사건은 연합된 연결망 안의 다양한 사고와 기억, 생리적 반응, 운동 반응을 활성화시킨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활성화되게 되는데(Berkowitz, 1990, 1993), 하나는 싸움 태세(fight tendency)로 분노와 연결되어 공격성과 관련된 연결망이 활성화되고, 다른 하나는 도주 태세(flight tendency)로 공포와 연결되어 도주 관련 연결망이 활성화된다. 상황적 영향과 유전적 소인, 과거 경험에 따라 두 반응이 각각 활성화되는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결정된 후에 즉시 고차 인지 과정이 개입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귀인이 이루어지고, 이는 전 단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반응을 증폭시키거나 억압하거나 정교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차 인지 과정이 항상 적절히 개입하지는 않는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사이의 관계는 CNA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경험은 공격성과 관련된 인지, 정서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강렬한 분노와 공격성을 느끼게 한다(Berkowitz, 1993). 이러한 활성화는 사소한 촉발 자극에 대한 귀인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분노와 공격성이 강렬하게 잠재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무해한 촉발 자극은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Miller et al, 2003), 이에 따라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사이의 관련성은 공격성과 분노에 대한 통합적 인지 모델(Integrative Cognitive Model; ICM)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ICM에 따르면 개인의 자동적인 인지 처리 경향이 적대적 상황과 공격적 반응 과정 사이에 개입한다(Wilkowski, & Robinson, 2010). 인지 처리과정은 분노와 공격성을 증폭시키거나 완화하게 되며,

ICM에서는 세 가지 인지 과정이 분노와 공격성에 있어서의 개인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적대적 해석(hotile interpretation)이다. 적대적 해석은 상황을 해석하여 촉발된 분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특정 개인들은 처한 상황에 대해 자동적으로 적대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이는 분노와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뇌의 시상(thalamus)과 피각(putamen)은 위협 사건의 경험(Kraaijenvanger et al., 2020)과 위협 자극에 대한 예측(Andrzejewski et al., 2019)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대적인 도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Zhu 등(2022)에 따르면 시상과 피각의 활성화 정도는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격 5요인과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 간의 관련을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개방성은 적대적 귀인 편향과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적대적 귀인 편향은 6개월 후의 전위공격성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Su et al, 2021).

4)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인지적 재평가의 관계

공격성과 분노에 대한 통합적 인지 모델에서는 적대적 상황과 공격적 반응 사이에 개입하는 주요한 인지과정 중 하나로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첫 번째, 재평가를 통해 처한 상황을 보다 비적대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적대적인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켜 반추적 주의집중 과정을 방해한다. 세 번째, 공격적인 행동이나 화난 표정과 같은 분노 표현을 억제한다. 이러한 의도적 통제의 첫 번째 기능과 유사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는 인지적 재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대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해석, 즉 적대

적 귀인편향 수준이 낮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한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이 내포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 신념 등을 구성하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해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1980). Bowlby(1980)는 개인이 양육경험에서 형성한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과 Beck(1976)이 제안한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도식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경험한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인지도식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인지도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설명하는 적대적 귀인편향은 단서해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로, 부정적인 사건이 타인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도식을 활성화할 때 나타난다(Crick & Dodge, 1994; Tuente et al, 2019).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개인의 왜곡된 인지 도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 적대적 귀인편향이 발달하고 활성화되는데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인지 처리 이론(Cognitive Process Theory)에서 재평가는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과 현재의 도식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의 관점이 변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Horowitz, 1993; Janoff-Bulman, 2010). 그리고 이러한 재해석의 결과는 현존하는 도식의 수정과 조절을 가져오게 된다(Finkel, 1974). 이와 같이 인지적 재평가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나아가 역기능적인 도식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Ray et al, 2005; Long, Hayes,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인지 도식을 형성하여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Barlett과 Anderson(2011)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인지

적 재평가 집단이 적대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그 상황에 대해 편향되게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더 취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6. 연구가설 및 모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인지적 재평가, 전위공격성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위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적대적 귀인 편향은 전위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적대적 귀인 편향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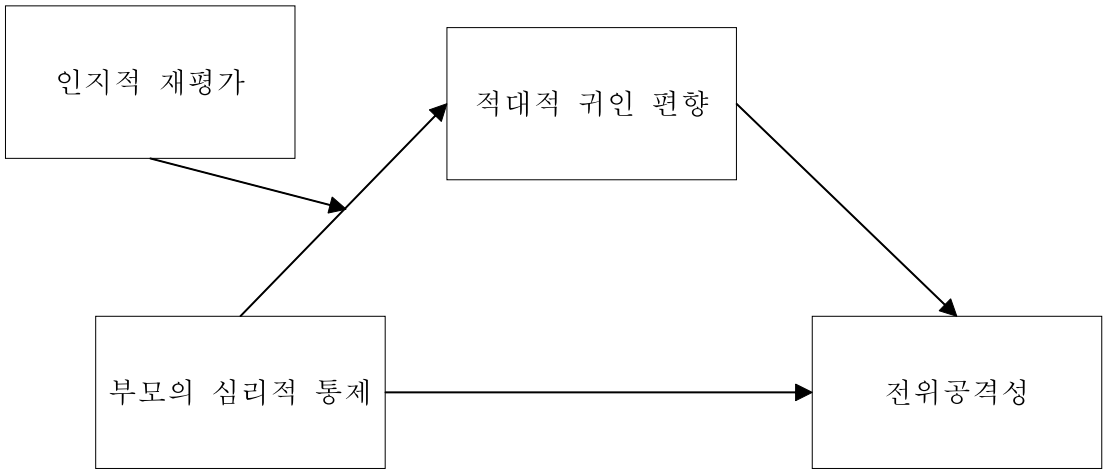
가설 5. 인지적 재평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6. 인지적 재평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 편향 사이에서의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사이에서의 인지적 재평가와 적대적 귀인 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연구모형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구모형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적대적 귀인 편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Westland(2010)은 잠재변수 당 관찰변수의 비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소 166명의 표본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30부터 11월 8일까지 약 10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소재의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글 폼을 활용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에 총 42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400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연구 참여에 있어서 참가자들의 자율성 및 익명성 보장,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 응답 시 주의사항,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연구에 대한 안내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변인 특성을 보면,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49명(37.25%), 여성 250명(62.5%), 기타 1명(0.25%)으로 보고되었고, 연령은 18세 이하 14명(3.5%), 19세 53명(13.25%), 20세 76명(19%), 21세 55명(13.75%), 22세 66명(16.5%), 23세 63명(15.75%), 24세 37명(9.25%), 25세 이상 36명(9%)이었다.

학적 관련 사항으로, 재학 중인 학년은 1학년 90명(22.5%), 2학년 89명(22.25%), 3학년 95명(23.75%), 4학년 100명(25%), 5학년 이상 26명(6.5%)으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고, 대학 소재지는 서울 264명(66%), 경기 70명(17.5%), 충청도 63명(15.75%), 기타 3명(0.75%)으로 보고되었다.

거주 관련 사항으로, 현재 거주지는 서울 217명(54.25%), 경기 138명(34.5%), 충청도 32명(8.0%), 기타 13명(3.25%)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동거하는 연구 참여자는 183명(45.75%), 부 또는 모 중 한명과 함께 거주하는 이는 31명(7.75%),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186명(46.5%)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61명(40.25%)이 가정 내 자녀가 지켜야할 규율, 규칙 등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239명(59.75%)는 이러한 규율, 규칙이 부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상기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에 제시되어있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0)

변수	분류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149	37.25
	여자	250	62.5
	기타	1	0.25
연령	18세 이하	14	3.5
	19세	53	13.25
	20세	76	19.0
	21세	55	13.75
	22세	66	16.5
	23세	63	15.75
	24세	37	9.25
	25세 이상	36	9.0
학력	1학년	90	22.5
	2학년	89	22.25
	3학년	95	23.75
	4학년	100	25.0
	5학년 이상	26	6.5
대학 소재지	서울	264	66.0
	경기	70	17.5
	충청도	63	15.75
	기타	3	0.75
거주지	서울	217	54.25
	경기	138	34.5
	충청도	32	8.0
	기타	3	0.75
동거 여부	부모 모두와 동거	183	45.75
	부 또는 모와 동거	31	7.75
	비동거	186	46.5
가정 내 규칙의 존재	있다	161	40.25
	없다	239	59.75

2. 측정도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가 개발하고, 이를 최명진(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언어적 표현의 제약 3문항, 감정의 무효화 3문항, 개인적 공격 3문항, 죄책감 유도 2문항, 애정철회 3문항, 기괴한 정서적 행동 2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언어적 표현의 제약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감정의 무효화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내가 하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개인적 공격은 '우리 부모님은 가족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비난하신다', 죄책감 유도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한 일에 대하여 모두 나에게 말씀하신다', 애정철회는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했을 때 나를 잘 쳐다보려 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기괴한 정서적 행동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명진(201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3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보고되었으며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표 3-2>에 제시되어있다.

<표 3-2>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 요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언어적 표현의 제약	3	1, 2, 3	.78
감정의 무효화	3	4, 5, 6	.74
개인적 공격	3	7, 8, 9	.71
죄책감 유도	2	10, 11	.61
애정철회	3	12, 13, 14	.75
기괴한 정서적 행동	2	15, 16	.87
전체	16		.92

2) 적대적 귀인 편향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 편향은 Crick(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적 상황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김은경(2008)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강영호(201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설적 상황도구는 타인 행동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의도 귀인 10문항과 타인 행동의 적대성을 판단하는 적대 귀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의도 귀인 .73, 적대 귀인 .67로 보고되었으며, 강영호(2015)의 연구에서는 의도 귀인 .79, 적대 귀인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2로 보고되었으며,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표 3-3>에 제시되어있다.

<표 3-3> 적대적 귀인편향의 하위 요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의도 귀인	10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62
적대 귀인	10	1.2, 2.2, 3.2, 4.2, 5.2, 6.2, 7.2, 8.2, 9.2, 10.2	.66
전체	20		.82

3) 인지적 재평가

본 연구에서 인지적 재평가는 Gross(2003)가 개발하고, 이를 손재민(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조절 질문지는 재평가 6문항과 억제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질문지의 하위요인인 재평가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재평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서 나의 정서를 통제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1점의 '전혀 아니다.'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ross 등(2003)의 연구에서 재평가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고, 손재민(2005)의 연구에서는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9로 보고되었다.

4) 전위공격성

본 연구에서 전위공격성은 Denson 등(2006)이 개발하고, 이하나(200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K)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는 분노반추 10문항, 전위된 공격행동 8문항, 보복계획 9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전위공격성의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측정한다. 각 하위요인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분노반추는 '누군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전위된 공격행동은 '나는 가끔 직장이나 학교에서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공격적이 될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복계획은 '나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지난 후에도 보복해 줄 방법을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7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범주는 1점의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전위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5로 보고되었으며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표 3-4>에 제시되어있다.

<표 3-4> 전위공격성의 하위 요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분노반추	10	2, 3, 6, 8, 11, 14, 17, 20, 22, 25	.94
전위된 공격행동	8	1, 5, 7, 10, 13, 16, 19, 21	.92
보복계획	9	4, 9, 12, 15, 18, 23, 24, 26, 27	.92
전체	27		.95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6.0, SPSS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6.0으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척도와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Hair(2003)에 의하면 척도의 Cronbach's α의 값은 .6 이상부터 수용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경향 및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Preacher 등(2007)에 의하면 조절된 매개효과는 모형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각각 유의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대적 귀인편향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재평가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1 Model 7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제 4 장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 편향, 인지적 재평가, 전위공격성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있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18~.82, 첨도의 절대값은 .25~.85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에서, 적대적 귀인 편향과 인지적 재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r = .41$, $p < .01$). 이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전위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 편향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r = .34$, $p < .01$),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중립적인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전위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 = .42$, $p < .01$), 이는 적대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클수록 강한 전위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재평가는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r = -.14$, $p < .01$), 이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와 전위공격성 또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r = -.20$, $p < .01$), 이는 인지적 재평

가 수준이 높을수록 전위공격성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인지적 재평가 간에도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r = -.09),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구분	1	2	3	4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2. 적대적 귀인 편향	.34**			
3. 인지적 재평가	-.14**	-.09		
4. 전위공격성	.41**	.42**	-.20**	
평균	2.16	1.30	3.54	3.13
표준편차	.74	.18	.72	1.08
왜도	.82	.18	-.72	.22
첨도	.56	-.25	.85	-.48

2.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40, p<.001). 즉,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적대적 귀인편향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위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11, p<.001).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전위공격성 또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위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고(β=.302, p<.001), 적대적 귀인편향 또한 전위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319,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총 효과는 .411으로 보고되었는데, 적대적 귀인편향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인 주 효과가 .302로 총 효과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	F	LLCI	ULCI
		b	SE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0.084	0.027	0.340	7.222***	0.116	52.156***	0.061	0.107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전위공격성	0.602	0.067	0.411	8.996***	0.169	80.925***	0.471	0.734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전위공격성	0.443	0.067	0.302	6.583***	0.259	69.370***	0.311	0.576
적대적 귀인편향		1.895	0.273	0.319	6.944***			1.358	2.431

*** p<.001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3>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기 위해 샘플의 수를 5000개로 지정하여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109로 보고되었다. 또한 하한값(LLCI=0.065)과 상한값(ULCI=0.156)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3>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β	BootSE	BootLLCI	BootULCI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적대적 귀인편향 → 전위공격성	0.109	0.023	0.065	0.156

3. 조절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사이의 관계를 인지적 재평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샘플 수는 5000개, 신뢰구간은 95%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b=.078, p<.001), 인지적 재평가는 적대적 귀인편향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b=-.006, p>.05).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재평가의 상호작용항이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b=-.030, p<.05),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른 R^2의 증가량 또한 유의했다(R^2=.011, 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평가가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변수	b	SE	t	LLCI	ULCI	R^2	F
종속변수: 적대적 귀인편향							
상수항	1.301	0.009	152.050***	1.285	1.318	0.129	19.497***
부모의 심리적 통제	0.078	0.012	6.531***	0.054	0.101		
인지적 재평가	-0.006	0.012	-0.451	-0.029	0.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인지적 재평가	-0.030	0.013	-2.237*	-0.056	-0.004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ΔR^2=0.011					F=5.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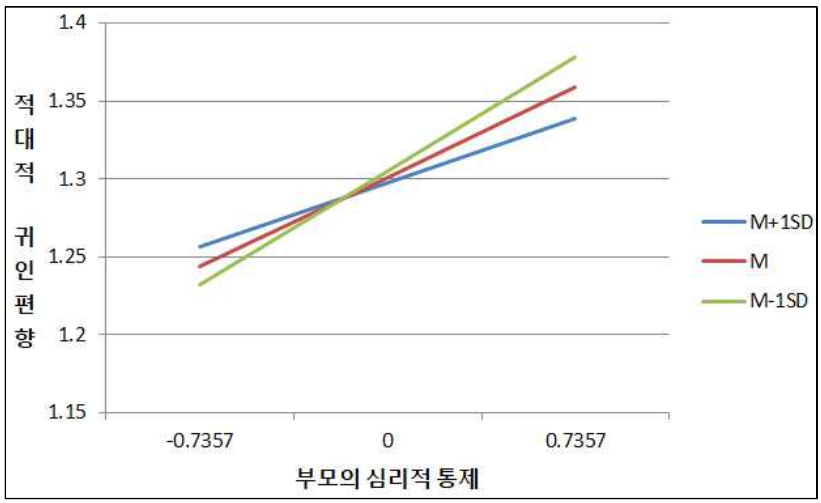
***p<.001, *p<.0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조절변인인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을 세 가지(M, M-1SD, M+1SD)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4-5> 인지적 재평가 수준에 의한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변인		b	se	t	LLCI	ULCI
인지적 재평가	M-1SD	0.099	0.014	7.165	0.072	0.126
	M	0.078	0.012	6.531	0.054	0.101
	M+1SD	0.056	0.017	3.382	0.024	0.089

<표 4-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인지적 재평가의 조건부 효과는 인지적 재평가가 낮을 때(b=.099, LLCI=.072, ULCI=.126), 평균일 때(b=.078, LLCI=.054, ULCI=.101), 높을 때(b=.024, LLCI=.024, ULCI=.089)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평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있다.

조절된 매개 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이현웅, 곽윤정, 2019), 조절변인이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산출된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0과 차이가 있는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Hayes,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조절된 매개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의 상한값(ULCI=-0.001)과 하한값(LLCI=-0.107)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사이의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를 인지적 재평가가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6>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변인	Index	SE	LLCI	ULCI
인지적 재평가	-0.057	0.027	-0.107	-0.001

조절된 매개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을 세 가지(M, M-1SD, M+1SD)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4-7> 인지적 재평가 수준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변인		b	se	LLCI	ULCI
인지적 재평가	M-1SD	0.188	0.040	0.114	0.269
	M	0.147	0.032	0.089	0.215
	M+1SD	0.106	0.035	0.045	0.184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 재평가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인지적 재평가가 낮을 때(b=.188, LLCI=.114, ULCI=.269), 평균일 때(b=.147, LLCI=.089, ULCI=.215), 높을 때(b=.106, LLCI=.045, ULCI=.184)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전위공격성을 표출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이해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기초적인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후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 편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 편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 편향,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연구결과에서 검증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위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개인이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강한 전위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사이의 여러 매개변인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이며(금다정, 정은정, 2020; 이가빈, 2019),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러 종류의

공격성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함께한다고 불 수 있다(Kuppens et al, 2013; Murray et al, 2014, Nelson & Crick, 2002; Albrecht et al, 2007; 손유진 등, 2022; 김경아, 권해수, 201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적대적, 의도적 귀인편향 간의 상관이 있음을 확인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Godleski, Ostrov, 2020; Price, Glad, 2003; MacBrayer et al, 2003). 적대적 귀인 편향과 전위공격성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는데, 이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Pornari, Wood, 2010; Li et al, 2016; Zhu et al, 2020).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전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적대적 귀인편향을 부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내면화된 수치심,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누리, 2022).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성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김혜진,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대적 의도귀인이 부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조서경,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성은 강한 전위공격성 표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재평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재평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상호작용하여 적대적 귀인편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에 따라서 유의하게 달라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재평가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에 미

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낮은 수준의 개인에 비해,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여도 낮은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Cheah et al, 2019), 자녀의 해석과 대처방법에 있어서의 문화적, 개인적 차이에 따라 통제적 양육방식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맥을 함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Pomerantz & Wang, 2009).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 사이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가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을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낮은 수준의 개인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여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위공격성이 표출되는 정도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높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것이 대인관계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이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경우, 상담 등의 개입을 통해 인지적 재평가 수준을 향상시키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 변인의 각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 변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살펴보고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

동과 청소년 시기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성인진입기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적대적 귀인편향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양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과도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여 강한 전위공격성을 보이는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인지적 재평가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나,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존재한다.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인지적 재평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적 재평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적대적 귀인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들 각각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뿐만 아니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적인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유의한 경로를 인지적 재평가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가 강한 전위공격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 환경과 같은 발달적 측면과 함께, 인지적 재평가와 같은 심리적, 인지적 대처전략의 수준을 탐색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적대적 귀인편향이 발달하여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왜곡해서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여 전위공격성이 나타나는 대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적대적 귀인편향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나타나기에(Pratto & John, 1991; Robinson, 1998), 개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귀인편향을 간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요인으로 인지적 재평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고하는 내담자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또한 상담 장면에서 개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변인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적대적 귀인편향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보호요인으로서 인지적 재평가의 효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지적 재평가 수준은 상담에서 개입을 통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향상이 가능하고(Carpenter,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재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이 제시되었다(Kivity & Huppert, 2016; Ranney et al, 2017; Rodriguez et al, 2019; Strain & D'Mello, 2015; Pogrebtsova et al, 2022).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지적 재평가는 상담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성비가 균등하지 못하고 여성에 편중되어 있었다. 남성은 전체 연구참여자의 약 37%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약 63%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괄한 전체 대학생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최대한 성비를 균등하게 맞추어 표본이 대학생 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참가자의 응답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적대적 귀인편향, 전위공격성의 경우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정서, 행동 등에 대해 솔직히 보고해야하는 문항이 많았다. 따라서 응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쳐 사실보다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특성을 부정확하게 지각하여 응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보완하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는 가설적 상황도구의 경우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다른 측정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가설적 상황도구에서 제시된 10개의 시나리오 각각에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자가 이입하기 어려워 동일요인 문항 간 응답 편차가 커졌을 수 있고, 본 척도가 문항 당 응답이 실질적으로 1점 아니면 2점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내적 일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설적 상황도구의 시나리오를 좀 더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거나, 적대적 귀인편향 수준을 좀 더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심리적 자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고민정.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의 관계: 외로움의 조절효과**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금다정, & 정은정.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09-622.

김경아, & 권해수.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평가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 효과. **Korea Journal, 23**(1), 139-156.

김광숙, 신경실, & 이훈민. (2017). 융복합시대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7**(4), 139-149.

김윤경 (2019). **인지적 재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지, & 이신동.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자기수용을 통한 사회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253-275.

김은경, & 이정숙. (2009).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인식, 표정해석, 의도귀인에서의 반응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13-129.

김지영, 신민섭, & 권석만. (2004).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919-935.

김지현. (2017). **남녀 대학생의 행동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 및 상호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아, &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3-275.

남가희, & 홍상황. (2015). 부정적 양육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2), 111-134.

류준범 (2001).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은애, &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문정희, & 천성문. (2020).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3), 253-276.

박경희, & 김혜원. (2022). 대학생 분노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29**(1), 239-268.

박기숙 (2018). **부모양육태도가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누리. (2022).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전위공격성의 관계**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박선경.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5**, 17-31.

박지환, 민성길, & 이만홍. (1997). 홧병에 대한 진단적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3).

서민재 (2009).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석민정, & 오인수. (2014).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관계. **중등교육연구, 62**(3), 491-511.

손유진, 이정숙, & 권선주.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7**,

81-95.
신애규 (2018).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경, &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오민선.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이경희, & 홍혜영.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101-114.
이나영, 하수홍, &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이세경, & 김영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이재필, & 최가희. (2022).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63-86.
이현응, & 곽윤정. (2019). 국내외 HRD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21**(1), 93-117.
장계영, &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정희선 (2022). **20대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서경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한익. (2002). Ego-gram에 나타난 어머니의 자아상태와 양육태도간의 관계. **교육논총, 제 18권**.
하정희, & 조한익. (2006).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595-611.
한아름, 김정민, & 강슬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03-115.
황예린, & 김유미. (2013). 마음챙김명상 기반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 51-68.
황지연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지연, & 연규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Abaied, J. L., & Emond, C. (2013). Parent psychological control and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in emerging adulthood: Moderating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ctivation. *Emerging Adulthood, 1*(4), 258-270.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Alcock, D., Solano, J., & Kayson, W. A. (1998). How individuals' responses and attractiveness influence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82(3_suppl), 1435-1438.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Andrzejewski, J. A., Greenberg, T., & Carlson, J. M. (2019). Neural correlates of aversive anticipation: An activation likelihood estimate meta-analysis across multiple sensory modalities.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19*(6), 1379-1390.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47.

Barlett, C. P., & Anderson, C. A. (2011). Reappraising the situation and its impact on aggress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2), 1564-1573.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1967.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Mcgraw-Hill Book Company.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Seperation, anxiety and depression*. New Yorks: Basic Books.

Brockman, R., Ciarrochi, J., Parker, P., & Kashdan, T. (2017).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daily life: Mindfulness, cognitive reappraisal and emotion suppress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6*(2), 91-113.

Brugman, S., Lobbestael, J., Arntz, A., Cima, M., Schuhmann, T., Dambacher, F., & Sack, A. T. (2015). Identifying cognitive predictor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1*(1), 51-64.

Bryan, J. L., Young, C. M., Lucas, S., & Quist, M. C. (2018). Should I say thank you? Gratitude encourages cognitive reappraisal and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253-258.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s,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7.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

Carpenter, R. (2016). A review of instruments on cognitive appraisal of stres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0*(2), 271-279.

Cheah, C. S., Yu, J., Liu, J., & Coplan, R. J. (2019). Children's cognitive appraisal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and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ce, 76*, 109-119.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559.

Dodge, K. A., Malone, P. S., Lansford, J. E., Sorbring, E., Skinner, A. T., Tapanya, S., ... & Pastorelli, C. (2015). Hostile attributional bias and aggressive behavior in global contex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30), 9310-9315.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632.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Psychological principles: I.*

Dryman, M. T., & Heimberg, R. G. (2018). Emotion regulation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expressive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Clinical psychology review,*

65, 17-42.

Ferguson, T. J., Stegge, H., Miller, E. R., & Olsen, M. E. (1999). Guilt, shame, and symptom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47.

Finkel, N. J. (1974). Strens and traumas: An attempt at categoriz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265.

Fishbein, M., Ajzen, I., & Belief, A. (1975).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Stress, positive emotion, and cop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4), 115-118.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

Garnefski, N., & Kraaij, V. (2006).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 development of a short 18-item version (CER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6), 1045-1053.

Gilbert, L. A., & Holahan, C. K. (1982). Conflicts between student/professional, parental, and self-development roles: A comparison of high and low effective copers. *Human Relations, 35*(8), 635-648.

Godleski, S. A., & Ostrov, J. M. (2020). Parental influences on child report of relational attribution biases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2*, 104775.

Gold, D. B., & Wegner, D. M. (1995). Origins of ruminative thought: Trauma, incompleteness, nondisclosure, and supp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14), 1245-1261.

Gomez, R., Gomez, A., DeMello, L., & Tallent, R. (2001). Perceived Maternal Control and Support: Effects on Hostile Biase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among Clinic referred Children with High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13-522.

Hair, J., Money, A., Babin, B., & Samouel, P. (2003). *Essentials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Horowitz, M. J. (1993). *Stress-response syndrome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49-60.

Janoff-Bulman, R. (2010). *Shattered assumptions. Simon and Schuster.*

Kivity, Y., & Huppert, J. D. (2016). Does cognitive reappraisal reduce anxiety? A daily diary study of a micro-intervention with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4(3), 269.

Kraaijenvanger, E. J., Pollok, T. M., Monninger, M., Kaiser, A., Brandeis, D., Banaschewski, T., & Holz, N. E. (2020). Impact of early life adversities on human brain functioning: A coordinate-based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13*, 62-76.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697.

Lazarus, R. S., & Alfert, E. (1964). Short-circuiting of threat by experimentally altering cognitive appraisal.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2), 195.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Li, C., Sun, Y., Ho, M. Y., You, J., Shaver, P. R., & Wang, Z. (2016). State narcissism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anger and hostile attributional bias. *Aggressive Behavior, 42*(4), 333-345.

Little, M., & Seay, D. (2014). By-gender risk path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ffects on emerging adult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8), 1040-1067.

Long, D. M., & Hayes, S. C. (2014). Acceptance, mindfulness, and cognitive reappraisal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ducators.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3*(1), 38-44.

MacBrayer, E. K., Milich, R., & Hundley, M. (2003). Attributional biases in aggressive childr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698.

Marcus-Newhall, A., Pedersen, W. C., Carlson, M., & Miller, N. (2000). Displaced aggression is alive and wel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670.

Martin, L. L., & Tesser, A. (1989). *Toward a motivational and structural theory of ruminative thought.*

Milich, R., & Dodge, K. A. (198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 psych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71-489.

Miller, N., & Marcus-Newhall, A. (1997). A conceptual analysis of displaced aggression. *Enhancing education in heterogeneous schools: Theory and application*, 69-108.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Murray, K. W., Dwyer, K. M., Rubin, K. H., Knighton-Wisor, S., & Booth-LaForce, C. (2014). Parent - child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Maternal and patern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1361-1373.

Nanda, M. M., Kotchick, B. A., & Grover, R. L. (201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4), 637-645.

Nelson, D. A., & Coyne, S. M. (2009).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Associations with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2), 223-237.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Pogrebtsova, E., Son Hing, L., & González-Morales, M. G. (2022). Effectiveness of an emotion regulation intervention versus an active control on daily well-being and cognitive reappraisal: An experience sampl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Pomerantz, E. M., & Wang, Q. (2009). The role of parental control in children's development in Western and East Asian countr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5), 285-289.

Pornari, C. D., & Wood, J. (2010). Peer and cyber aggres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outcome expectancie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6*(2), 81-94.

Pratto, F., & John, O. P. (1991). Automatic vigilance: the attention-grabbing power of negative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380.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Price, J. M., & Glad, K. (2003). Hostile attributional tendencies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329-343.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6), 1305-1320.

Rachman, S. (1981). Part I. Unwanted intrusive cognitions.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89-99.

Ranney, R. M., Bruehlman-Senecal, E., & Ayduk, O. (2017). Comparing the effects of three online cognitive reappraisal trainings on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5), 1319-1338.

Ray, R. D., Ochsner, K. N., Cooper, J. C., Robertson, E. R., Gabrieli, J. D., & Gross, J. J. (2005).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it rumination and the neural systems supporting cognitive reappraisal.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5*(2), 156-168.

Ray, R. D., Wilhelm, F. H., & Gross, J. J. (2008). All in the mind's eye? Anger rumination and re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1), 133.

Robinson, M. D. (1998). Running from William James′ bear: A review of preattentive mechanisms and their contributions to emotional experience. *Cognition & Emotion, 12*(5), 667-696.

Rodney, V. (2000). Nurse stress associated with aggression in people with dementia: its relationship to hardiness,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1), 172-180.

Rodriguez, L. M., Dell, J. B., Lee, K. D., & Onufrak, J. (2019). Effects of a brief cognitive reappraisal intervention on reductions in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3*(7), 637.

Romm, K. F., Metzger, A., & Alvis, L. M. (2020).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problematic outcom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 195-207.

Schönenberg, M., & Jusyte, A. (2014). Investigation of the hostile attribution bias toward ambiguous facial cues in antisocial violent offender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64*(1), 61-69.

Shiota, M. N., & Levenson, R. W. (2009). Effects of aging on experimentally instructed detached reappraisal, positive reappraisal, and emotional behavior suppression. *Psychology and aging, 24*(4), 890.

Shiota, M. N., & Levenson, R. W. (2012). Turn down the volume or change the channel? Emotional effects of detached versus positive reapprai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3), 416.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 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Strain, A. C., & D'Mello, S. K. (2015). Affect regulation during learning: The enhancing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9*(1), 1-19.

Su, S., Quan, F., & Xia, L. X.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openness trai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displaced aggressive behaviour: Big Five treated as covari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5), 669-678.

Tuente, S. K., Bogaerts, S., & Veling, W. (2019).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in adults-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6*, 66-81.

Westland, J. C. (2010). Lower bounds on sample siz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9*(6), 476-487.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Winner, N. A., & Nicholson, B. C. (2018). Overparenting and narcissism in young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1), 3650-3657.

Wu, L., Winkler, M. H., Wieser, M. J., Andreatta, M., Li, Y., & Pauli, P. (2015). Emotion regulation in heavy smokers: experiential, expressive and 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cognitive reappraisal. *Frontiers in psychology, 6*, 1555.

Zhu, W., Chen, J., Tian, X., Wu, X., Matkurban, K., Qiu, J., & Xia, L. X. (2022). The brain correlate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their relation to the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17*, 204-211.

Zhu, W., Chen, Y., & Xia, L. X. (2020). Childhood maltreatment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110007.

부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

다음은 귀하의 주 양육자에 대한 생각과 느낌 묻는 문항입니다.
전반적인 주 양육자와의 모습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항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중단시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중간 중간에 자주 방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분이 어떤지를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부모님은 항상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내가 하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모님은 가족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비난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모님은 나를 꾸중하실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서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한 일에 대하여 모두 나에게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약 내가 부모님을 위한다면, 부모님을 걱정시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부모님은 만약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부모님의 방식대로 보지 않는다면, 다정하지 않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이 나에게 실망했을 때 나를 잘 쳐다보려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만약 내가 부모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다시 부모님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 까지 나하고 말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모님은 나를 대하실 때 기분이 자주 바뀌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적대적 귀인편향 척도(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

다음에 나오는 상황을 잘 읽어 보고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각 상황을 주의 깊게 읽고 문항 모두에 대하여 자신과 가까운 항목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나는 새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를 갔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핸드폰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도착한 후, 잠깐 물을 마시러 가면서 어떤 친구에게 그 핸드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주고 갔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와서 보니 그 친구가 나의 새 핸드폰을 망가뜨렸다.
	1-1) 그 친구는 왜 내 핸드폰을 망가뜨렸는가? ① 그 친구는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다. ② 그 친구는 실수로 망가뜨린 것이다. 1-2) 그 친구가 내 핸드폰을 망가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중요한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친구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다.
	2-1) 그 친구는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① 그 친구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만난 것이다. ② 그 친구는 우연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난 것이다. 2-2)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점심시간 나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내

	가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등에 물을 쏟아서 옷이 다 젖고 말았다.
	3-1) 그 사람은 왜 내 등에 물을 쏟았는가? ① 그 사람은 고의로 내 등에 물을 쏟은 것이다. ② 그 사람은 실수로 내 등에 물을 쏟은 것이다. 3-2) 그 사람이 내 등에 물을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4. 나는 학교 복도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같은 과 동기 두 명이 내 앞을 지나가다 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삭이면서 웃었다.
	4-1) 그 동기들은 왜 날 보고 속삭이면서 웃었는가? ① 그 동기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웃은 것이다. ② 그 동기들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것이다. 4-2) 그 동기들이 나를 보고 나서 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동기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동기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5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새 신발을 처음 신고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과 동기가 뒤에서 날 밀치는 바람에 그만 진흙탕에 빠져버렸고, 내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됐다.
	5-1) 그 동기는 왜 나를 밀쳤는가? ① 그 동기는 일부러 나를 진흙탕에 밀친 것이다. ② 그 동기는 앞에 진흙탕이 있는 줄 모르고 밀친 것이다. 5-2) 그 동기가 나를 진흙탕에 밀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동기는 나를 골탕 먹이고 싶었다. ② 그 동기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쉬는 시간, 나는 학교 화장실 안에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같은 과 동기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보니 생일 파티 초대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생일 파티에 동기들 대부분을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난 초대

	를 받지 못했다.
	6-1) 그 동기들은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가? ① 그 동기들은 일부러 나를 빼놓고 다른 친구들만 초대한 것이다. ② 그 동기들은 나를 깜빡 잊고 초대하지 않은 것이다. 6-2) 그 동기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동기들은 나에게 화가 났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② 그 동기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7	미술 시간이었다. 나는 작품을 막 완성했는데, 생각 외로 잘 만들어져서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가 내 작품을 구경하다가 내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동안에 작품에 물을 쏟았다. 내가 열심히 만든 작품은 엉망이 됐다.
	7-1) 그 친구는 왜 내 작품에 물을 쏟았는가? ① 그 친구는 일부러 내 작품에 물을 쏟은 것이다. ② 그 친구는 실수로 내 작품에 물을 쏟은 것이다. 7-2) 그 친구가 내 작품에 물을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친구는 나에게 샘이 나거나 화가 났다. ②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8	나는 점심시간 후 학교 앞 광장에 있었다. 같은 과 동기들이 잔디밭 쪽 벤치에 앉아서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쪽으로 걸어가 옆에 앉았는데, 동기들은 입을 다물고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8-1) 그 동기들은 왜 내가 옆에 앉자 대화를 멈추고 말을 걸지 않았는가? ① 그 동기들은 내가 오자 일부러 대화를 멈추고 말을 걸지 않은 것이다. ② 그 동기들은 마침 대화가 끝났고 내가 온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8-2) 그 동기들이 대화를 멈추고 말을 걸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동기들은 나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 동기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9	나는 과 동기들과 축구시합 도중이었다 그런데 . 옆에서 농구를 하던 다른 동기가 공을 던져서 나는 그 공을 맞고 넘어졌다. 나는 넘어지면서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시합에서 졌다.
	9-1) 그 동기는 왜 나에게 공을 던졌는가? ① 그 동기는 일부러 나에게 공을 던진 것이다. ② 그 동기는 실수로 나에게 공을 던진 것이다. 9-2) 그 동기가 공을 던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동기는 내가 다치고 골탕 먹기를 바랐다. ② 그 동기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	나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아는 애들 두 명을 보았고, 나는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인사를 못 들은 것처럼 대답도 없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다.
	10-1) 그 애들은 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갔는가? ① 그 애들은 일부러 내 인사를 무시하고 가버린 것이다. ② 그 애들은 미처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버린 것이다. 10-2) 그 애들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가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① 그 애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애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부록 3. 인지적 재평가 척도(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2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트레스 상황에 닥쳤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정서를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전위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K)

다음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오래전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내가 보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종종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들을 곱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누군가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마땅히 앙갚음해야 할 누군가에게 보복할 방법이 잘떠오르지 않으면 속이 많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때때로 나의 화나 좌절이 친구나 가족들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화가 나면 한 동안 그 생각에 빠져 있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 지난 후에도 보복해 줄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아무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언쟁이 끝난 후에도 나는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과 계속 싸우는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준다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옳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안 돼서 좌절될 때면, 나는 내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분풀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화가 났던 사건을 나중에 다시 떠올려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시간이 지날수록 복수로 인한 나의 만족감은 더 커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만약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나는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내 인생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무언가가 있다.							
21	나는 가끔 직장이나 학교에서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공격적이 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누군가가 내 비위를 건드리면 언제고 반드시 보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난 화가 나면 내가 욕설을 퍼붓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 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화가 나면 나는 내 생각과 기분에 빠져 한동안 다른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만약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당신을 상처 준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on Displaced Aggression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

Lee, Dongmin

Department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verifi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hostile attribution bias by cognitive reappraisal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splaced aggression to understand the clients who have high level of displaced aggression in the counseling field, and identify the protective factors that can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isplaced aggression.

The subject of the thesis was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and 421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400 copie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used SPSS 26.0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calcul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variable was confirm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After that, the mediation effect, moderation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sequentially perform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analysis results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reported as follows. First, all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except for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cognitive reappraisal were significa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splaced agg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displaced aggress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In addition,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reappraisal, displaced agg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Secon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hostile attribution bia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splaced aggression. Third,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was significantly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Specifically, the higher the level of cognitive reappraisal, the less the positiv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hostile attribution bias. Fourth,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level of cognitive reappraisal, the less the mediation

effect of hostile attribution bia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thesis, conclusion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hostile attributional, cognitive reappraisal, displaced aggress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20-20501